濟州島硏究 제47집
2017. 2. pp. 1~47.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현황과 분석*

홍기표**

국문 요약

제주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선시대 비석군이 산재하고 있다. 목민관 비석, 유허비, 정려비(충·효·열비) 등 제주도는 '금석문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에 내린 정려에 대한 문헌 조사와 지역별 정려비 전수 조사를 함께 이룬 결과물이다. 문헌에 실린 제주의 효자, 열녀, 충의(사)는 총 84명의 사례가 파악되었지만, 정려비는 총 71기(77명)로 조사되었다.

정려비 71기의 지역별 소재는 제주시 50기(52명), 서귀포시 21기(27명)이다. 특히 제주시 북서부 지역인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지역 소재 충효열비가 총 33기(34명)이어서 제주 전역의 충효열 정려비 중 절반에 해당한다. 서귀포시 지역은 충효 및 충의비가 다수 소재하며, 특히 성산읍과 대정읍에 집중되어 있다.

내용별로는 효자 21기(21명), 효열 20기(20명), 열녀 20기(18명), 충효 4기(6명), 충의 6기(12명)로 구분된다. 성별로는 남자 29기(37명), 여자

* 이 논문은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공모 선정으로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 보고서를 요약하였음. 또한 향토사학자인 김익수 선생님의 감수를 거쳤으며, 맺음말의 '제주 정려비 비석의 보존과 자원화 방안'에 대한 생각은 한라일보 이윤형 논설위원의 제언을 반영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42기(40명)이다. 효자 정려비는 대부분 부모를 정성스레 봉양 또는 간병하여 정려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작지(斫指), 할경(割脛) 등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소생 및 연명시키는 경우이다. 효열 정려비는 대부분 봉양(시부모) 또는 간병(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하여 정려되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종신 수절하며 시부모나 남편을 봉양하고 간병하는 경우이다. 열녀 정려비는 대부분 남편이 죽은 후 자결하거나 종신 수절하는 경우이다. 충효 정려비는 효자이면서 나라(임금)에 충성을 다해 '충효'의 정려를 받은 경우이다. 대부분 국상 때 3년복 시행, 직접 상경하여 능역 참가 등으로 받았다. 충의 정려비는 '의사'와 '의녀'로 구분되는데, 일본 어부의 약탈에 저항, 프랑스 외세 침략에 저항, 빈민구휼, 유배인 보호 등의 이유로 수여한 경우이다.

주제어: 정려비, 제주, 조선, 효자, 열녀.

I. 머리말

현재 전근대 제주사 연구는 문헌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관찬 정사는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초본)』, 『증보탐라지』 등 역사지지서 및 『남명소승』, 『남사록』, 『지영록』, 『속음청사』 등 개인 문집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문헌을 통해 전근대 제주사의 실체가 규명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반해 1차 사료라는 중요한 위상을 지녔음에도 금석문을 통해, 특히 비석을 통해 제주사의 고증, 보완, 사실 규명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전근대 시대 비석(군)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어느 지역에 몇 기의 비석이 있는지, 그 비석이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인지, 언제 건립되었는지, 그 비석이 뜻하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등등 문화재(자료)로서의 그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미비한 상태이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이룬 적이 있다.[1] 본고는 그 후속 연구로써 제주 전역에 걸친 조선시대 정려비(旌閭碑)의 건비 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인물별, 시기별, 소재지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이루고자 한다. 그리하면 전근대 시대 총체적인 '제주 금석문' 자료가 확보되어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2]

Ⅱ. 정려비의 일반 현황

조선시대는 삼강오륜에 입각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해 충신·효자·열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권장하였다. 특히 그들이 살던 마을(입구)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1392년 7월 그의 즉위교서에서 충신·효자·의부·열부의 일은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널리 권장하여 정표로 삼도록 하였다.[3] 뿐만 아니라 세종은 직제학 설순(偰循)에게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삼강행실도』를 제작하게 하여 1434년(세종 16) 11월 전국에 반포하였다.[4]

이처럼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던 일은 신라 때부터였다. 『삼국사기』

---

1) 홍기표, 2015,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현황과 분석」, 『제주도연구』 45호, 제주학회.

2) 필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반에 걸쳐 제주도 일원에 산재해 있는 충효열 정려비를 현장 답사하여 그 소재지 및 수량을 파악하였다. 비석 총량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비문에 대한 글자 고증, 해석, 분석의 내용은 필자가 2016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낸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실태조사와 자원화 방안』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3) 『태조실록』 권1, 태조1년(1392), 7월 28일(정미).

4) 『세종실록』 권66, 세종16년(1434) 11월 24일(무술).

(권48, 열전8)에 신라의 효녀 지은(知恩)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포상으로 정강왕(定康王)이 조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리고, 그 마을을 정표하여 효양방(孝養坊)이라 했다고 전한다.[5] 고려에서는 『고려사』(권121, 열전34)에 효우전과 열녀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각각 효우 17인과 열녀 12인이 소개되어 있다.[6] 이들은 대부분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봉양한 효자·효녀의 일화와 외적 침입시 부인의 절개를 지키며 자결했거나 살해당한 경우이다. 고려는 아직 유교적인 예법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고려후기의 사례가 『고려사』에 다수 소개되었다. 예컨대 묘소 곁에서 3년 상을 지내거나, 집에 가묘를 세워 조상에 제례를 올리는 경우, 우왕 때 왜구들의 겁탈에 저항하며 살해당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제주에서도 충·효·열과 관련된 정려문 및 정려비는 다수 세워졌다. 오늘날 전하는 최초의 사례는 고려 후기 원간섭기 목호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7]의 아내인 열녀 정씨(鄭氏)이다. 1374년(공민왕 23) 목호의 난 때 최영(崔瑩) 장군이 이끌던 고려군사에 남편이 죽자 이후 종신 수절하여 그 정절을 높이 사 정려한 것이었다. 현재 남원읍 한남리 마을회관에 그녀를 추모하는 비가 있다. 후면에 1834년(순조 34) 한응호(韓應浩) 목사가 비석을 다시 세웠다고 새겨 있어서[8],

---

5) 『삼국사기』 권48(열전8), 효녀 지은(知恩).

6) 효우전은 문충 이하 17인을 소개하였는데, 인물은 다음과 같다. ① 문충 ② 석주 ③ 최루백 ④ 위초 ⑤ 서릉 ⑥ 김천 ⑦ 황수 ⑧ 정유 ⑨ 조희참 ⑩ 정신우의 딸 ⑪ 손유 ⑫ 권거의 ⑬ 노준공 ⑭ 신사천의 딸 ⑮ 윤구생 ⑯ 번전 ⑰ 군만. 열녀전은 호수의 부인 유씨 이하 12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인물은 다음과 같다. ① 호수 처 유씨 ② 현문혁 처 ③ 홍의 처 ④ 안천검 처 ⑤ 강화 처녀 3형제 ⑥ 정만 처 최씨 ⑦ 이동교 처 배씨 ⑧ 강호문 처 문씨 ⑨ 김언경 처 김씨 ⑩ 경덕의 처 안씨 ⑪ 이득인 처 이씨 ⑫ 권금 처. 한편 충의전은 왕명을 받들어 충절을 다하거나, 국내외 반란 및 전쟁시 절개를 굽히지 않고 당당히 죽음을 택했던 의로운 인물들을 수록하였다. 총 6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인물은 다음과 같다. ① 홍관 ② 정의③ 고보준 ④ 문대 ⑤ 조효립 ⑥ 정문감.

7)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 문헌에 따라 석나리보개(石那里甫介) 또는 석방리보개(石邦里甫介)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8) 비석 후면 말미에 건비 이유 및 연대를 다음과 같이 새기고 있다. “목사

그 이전부터 비석은 이미 세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정려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모든 문헌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충효열의 사례를 처음 전하는 문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는데 이 책에는 구좌읍 김녕리 효자 김칭(金秤)과 열녀 정씨의 사례만 전해진다. 1530년(중종 25)에 편찬되어 그 이전 사례만 소개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례만 전한 것이다. 물론 조선초기의 충효열 사례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전하는 문헌이 없어 알 길은 없다. 그 이후 충효열의 사례는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점차 다수의 사례가 전해진다. 효종 때 『탐라지』(이원진), 순조 때 『효열록』(김영락), 헌종 때 『탐라지초본』(이원조), 일제강점기 『탐라기년』(김석익), 해방 후 『증보탐라지』(담수계) 등에 중복되어 전하거나 새로운 사례가 첨가되면서 약 84명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9]

한편 현재 제주 전역에는 1910년 이전 조선시대의 충·효·열과 관련된 정려비가 71기(77명)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문헌에 소개된 효열의 경우와 오늘날 비석으로 전하는 사례가 동일한 것은 40기(41명)+1정려각(효자 박계곤 1명), 총 42명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10] 다시 말해 문헌에 전하는 44명의 충효열사례는 정려비로 찾

한공께서 특별히 훗날의 양식을 내리어 석비를 고쳐 세웠다. 도광 14년(1834, 순조 34) 3월 일(牧使韓公 特下後粮 改造石碑 道光十四年 三月日)."

9) 『신증동국여지승람』 2명, 『탐라지』 5명, 『효열록』 61명, 『탐라지초본』 31명, 『탐라기년』 45명, 『증보탐라지』 66명 등 총 210명의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들 중 중복된 경우를 한 명으로 처리한 결과가 84명이다.

10) 문헌과 비석으로 모두 전하는 42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효자(8명): 김칭, 진대석, 강운, 박계곤(정려각), 현윤경, 고윤문, 현원상, 김치화. ② 효열(8명): 강씨(김창백처), 김씨(김창은처), 문씨(송덕보처), 고씨(문명훈처), 이씨(강응록처), 김씨(강응주처), 고씨(김여빈처), 김씨(조명윤처). ③ 열녀(14명): 정씨(석곡리보개처), 김천덕(연근처), 국지(홍질첩), 송씨(강시한처), 오씨(강위보처), 김씨(김정욱처), 박씨(이항춘처), 고소락(열녀박씨비), 오씨(김창언처), 박씨(손처권처), 김씨(오융복처), 양씨(전형원처), 고씨(강사철처), 양씨(임도관처). ④ 충효(5명):홍달한, 이필완, 송경천(3부자). ⑤ 충의(7명): 오흥태, 구제국, 김만덕, 홍윤애, 삼의사(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아볼 수 없고[11], 31기의 충효열 비석은 문헌에 소개되지 않은 경우여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12]

이제 문헌에 전하는 충효열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날 전하는 정려비를 소개한 뒤, 이들의 중복 여부까지 파악하여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사례에 대한 전수 파악을 이루고자 한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기할 것이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전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헌에 전하는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문헌에 전하는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사례는 총 84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크게 효자, 효부, 열녀, 충의(의사), 의녀 등 다섯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2명(효1, 열1), 『탐라지』 5명(효2, 열3), 『효열록』 61명(효31, 열27, 의3), 『탐라지초본』 31명(효10, 열19, 의2), 『탐라기년』 45명(효19, 열22, 의4),

11) 문헌에는 전하는데 정려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44명이다. ① 효자(20명): 고득종, 고찬원, 고명학, 채광근, 부천겸, 강세억, 신치득, 고한원, 양종인, 진달열, 강봉한, 양흡, 김종은, 송경훈, 송응규, 김광숙, 이계징, 이교신, 임재발, 이종응. ② 효열(9명): 김옥, 고옥매(유제기처), 강조이(고영도처), 강조이(한광혁모), 김조이(송계호처), 홍조이(현도견처), 문씨(이동백처), 김씨(이종응처), 강씨(양원방처). ③ 열녀(13명): 주씨(고거상처), 홍조이(김창욱처), 부가처, 오조이(김천종처), 김씨(양일복처), 양씨(변지환처), 정매(변종원처), 양씨(조계상처), 김씨(윤방언처), 김씨(송지옥처), 부씨(오극지처), 김씨(김광빈처), 홍성(조취승처). ④ 충의(2명): 양위경, 류명록.

12) 충효열 비석 중 문헌에 전하지 않는 경우는 31기(35명)이다. ① 효자(13명): 김명집, 이광엽, 문달민, 문처웅, 김흥조, 이영조, 김효순, 조인철, 고한철, 고달인, 양서종, 현재옥, 오몽열. ② 효열(12명): 고씨(오경인처), 최씨(김광삼처), 김씨(김흥복처), 양씨(고영운처), 장씨(임유근처), 좌씨(조사창처), 김씨(고붕익처), 장씨(고정언처), 고씨(진명서처), 이씨(김려관처), 윤씨(하용우처), 고씨(정연집처). ③ 열녀(4명): 한씨(김영은처), 오씨(박성림처), 송씨(양기석처), 김씨(김맹원처). ④ 충효(1명): 문달복. ⑤ 충의(5명, 오좌수): 이만송, 이흥복, 정종무, 김성만, 김성일.

『증보탐라지』 66명(효25, 열32, 의9)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 중 중복된 경우도 나타나 이를 한 명으로 처리한 결과가 84명이다.

이를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효 39명(효자31, 효부8), 열녀 36명, 충(의) 9명(의사7, 의녀2)이다. 또한 조선시대 지역별로 나누면 제주목 48명(효25, 열21, 충2), 정의현 19명(효9, 열9, 충1), 대정현 13명(효2, 열5, 충6), 지역 미상도 4명이다. 이상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Ⅱ-1>과 <표 Ⅱ-2>이다.

〈표 II-1〉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사례(문헌)

문헌명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이원진)	효열록(김영락)	탐라지초본(이원조)	탐라기년(김석익)	증보탐라지(담수계)	총사례/실사례(중복제외)
간행연대		1530	1653	1834	1841	1918	1953	■
효	효자	1	2	26	9	17	20	75 / 31
	효부			5	1	2	5	13 / 8
열(녀)		1	3	27	19	22	32	105 / 36
충의	의사			3	1	3	7	14 / 7
	의녀				1	1	2	4 / 2
총계		2	5	61	31	45	66	210 / 84

〈표 II-2〉 조선시대 제주 충효열의 지역적 구분(문헌)

구분	효		열	충(의)		계
	효자	효부		의사	의녀	
제주목	23	2	21	■	2	48
정의현	5	4	9	1	■	19
대정현	2	■	5	6	■	13
지역미상	1 (이종응)	2 (이동백 처, 이종응 처)	1 (조취승 처)	■	■	4
계	31	8	36	7	2	84

이상의 사례를 지역, 인물, 내용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효행(효자, 효부)

(1) 제주목 : 25명

① 고득종(高得宗): 1414년(태종14) 과거급제, 한성부판윤 역임. 효행정려.

② 김칭(金秤): 김녕리. 모친봉양(割脛). 1487년(성종18) 정려.

③ 진대석(秦大石): 광령리. 군역병행(독신) 모친봉양. 1634년(인조12) 정려.

④ 고찬원(高贊元): 고성리(애월). 군역병행 모친봉양. 1699년(숙종25) 정려.

⑤ 박계곤(朴繼崑): 엄장리. 표류시 부모전상서(판자). 숙종능역. 1794년(정조18) 복호.

⑥ 이필완(李弼完): 입석촌(대림리). 모친봉양/부친추복. 영조능역. 1862년(철종13)정려.

⑦ 고윤문(高允文): 두모리. 모친봉양(독신). 1814년(순조14) 정려.

⑧ 부천겸(夫千兼): 영평리. 효자 박계곤의 외손. 부모봉양(검변, 아우 배필 배려). 1822년(순조22) 복호.

⑨ 현원상(玄遠祥): 어도리. 부친봉양(검변), 묘소호곡(노루). 1822년(순조22) 복호.

⑩ 송인명(宋仁明)/송의명(宋義明):3부자표류, 부친사망(시신운반). 1822년(순조22) 복호.

⑪ 신치득(愼致得): 도련리. 계모봉양. 1829년(순조29) 복호.

⑫ 김종은(金宗銀): 수산리(애월). 부친간병(斫指). 복호.

⑬ 양종인(梁宗仁): 수산리(애월). 부친간병(斫指). 복호.

⑭ 진달열(秦達悅): 소길리. 모친간병(斫指). 부친등용.

⑮ 강봉한(姜奉漢): 장전리. 모친간병(斫指). 복호.

⑯ 송경훈(宋京勛): 귀일리. 부친간병(斫指). 복호.
⑰ 고한원(高漢元): 도로리(도남동). 부친봉양(독신). 1833년(순조33) 복호.
⑱ 송응규(宋膺奎): 도로리. 부친간병(斫指). 복호.
⑲ 양흡(梁翕): 하무리(하도리). 모친간병(斫指). 복호.
⑳ 김광숙(金光淑): 모친봉양(斫指, 檢便). 1860년(철종11) 복호.
㉑ 김치화(金致和): 모친봉양, 묘소여막. 1885년(고종22) 정려.
㉒ 채광근(蔡光謹): 북촌리. 부모 지성(3년상).
㉓ 이계징(李啓徵): 도련리. 부모봉양, 사후 묘소호곡. 1906년(광무10) 정려.
㉔ 김옥(金玉): 외도(동). 시부봉양. 1744년(영조20) 정려.
㉕ 김조이(金召史): 하도리. 송계호(宋繼豪)처. 시증조부&시숙 봉양(백어&홍시). 1833년(순조33) 정려.

(2) 정의현 : 9명
① 홍달한(洪達漢): 고성리(성산). 모친봉양(檢便, 斫指). 3년상. 부친추복. 숙종국상. 1764년(영조40) 정려.
② 강운(康運): 성읍리. 열녀 천향의 아들. 모친봉양. 부친추복. 1780년(정조4) 정려.
③ 고명학(高鳴鶴): 효돈리. 모친봉양. 등용거절.
④ 현윤경(玄胤慶): 정의현. 부친간병(斫指). 1814년(순조14) 정려.
⑤ 강세억(康世億): 수산리(성산). 모친봉양. 1822년(순조22) 복호.
⑥ 강조이(康召史): 수산리(성산). 고영도(高永嶋) 처. 시부모봉양. 1822년(순조22)복호.
⑦ 강조이(康召史): 수산(성산). 한광혁(韓光赫) 모. 시부모봉양. 1822년(순조22) 복호.
⑧ 홍조이(洪召史): 오조리. 현도견(玄道堅) 처. 시부모봉양.

⑨ 김씨: 성읍리. 조명윤(趙命允) 처. 시부 봉양.

(3) 대정현 : 2명

① 이교신(李喬新): 부친봉양. 1822년(순조22) 복호.

② 임재발(任再發): 모친봉양. 1822년(순조22) 복호.

(4) 지역미상 : 3명

① 이종응(李鍾應): 부친봉양(잉어).

② 문씨: 이동백(李東伯) 처. 시부모봉양.

③ 김씨: (효자) 이종응(李鍾應) 처. 시모간병(꿩).

2) 열녀

(1) 제주목: 21명

① 천덕(千德): 곽지리. 연근(連根) 처. 종신수절. 임제(천덕전). 1577년(선조10) 정려.

② 국지(國只): 신촌리. 홍질(洪質) 첩. 종신수절. 1634년(인조12) 정려.

③ 강유진(姜有眞): 곽지리. 김창백(金昌伯) 처. 자액(自縊). 1744년(영조20) 정려.

④ 오씨(吳氏): 어도리. 강위보(姜渭輔) 처. 자액. 1780년(정조4) 정려.

⑤ 박씨(朴氏): 엄장리. 효자박계곤(朴繼崑) 딸. 이항춘(李恒春) 처. 종신수절. 1794년(정조18) 정려.

⑥ 고소락(古所樂): 열녀 박씨 충비(忠婢). 종신불가. 1794년(정조18) 정려.

⑦ 주씨(周氏): 저지리. 고거상(高擧常) 처. 자액. 1744년(영조20) 정려.

⑧ 홍조이(洪召史): 노형리. 홍인효(洪仁孝) 딸. 엄장리 김창욱(金昌旭) 처. 자액. 1744년(영조20) 정려.

⑨ 김씨(金氏): 아라리. 오융복(吳隆復) 처. 자결. 1814년(순조14) 정려.
⑩ 박조이(朴召史): 손처권(孫處權) 처. 자액.
⑪ 양씨(梁氏): 아라리. 전형원(田衡元) 처. 자결. 1814년(순조14) 정려.
⑫ 문조이(文召史): 건입리 송덕보(宋德寶) 처. 단식자결. 棺 표면(海藻螺殼). 1862년(철종13) 정려.
⑬ 고옥매(高玉梅): 노형리. 유제기(兪濟起)처. 종실수절/시모봉양. 1794년(정조18)정려.
⑭ 양씨(梁氏): 고성리(애월). 조계상(趙啓祥) 처. 자결(남편 대신).
⑮ 김씨(金氏): 오라리. 양일복(梁日復) 처. 자결. 1860년(철종11) 복호.
⑯ 양씨(梁氏): 매촌(도련) 변지환(邊之桓) 처. 자결. 1860년(철종11) 복호.
⑰ 고씨(高氏): 북촌리. 김여빈(金汝彬)처. 남편시신운구(의주->제주). 1864년(고종1) 미육(米肉)하사.
⑱ 김씨(金氏): 윤방언(尹邦彦) 처. (표류 일본행)남편시신운구(동래->제주).
⑲ 고씨(高氏): 납읍리. 문명훈(文明訓) 처. 남편 간병(斫指) 1884년(고종21) 복호.
⑳ 김씨(金氏): 송지옥(宋之玉) 부실(副室). 종신수절.
㉑ 강씨(姜氏): 신창리. 양원방(楊元邦) 처. 남편, 시모 간병. 종신수절.

(2) 정의현: 9명
① 정씨(鄭氏): 석나리보개(石那里甫介) 처. 종신수절.
② 부가(夫哥) 처: 의귀리 군교 부가 처. 수절(斫手), 자결. 1744년(영조20) 정려.
③ 오조이(吳召史): 김천종(金千鍾) 처. 자액. 1757년(영조33) 정려.
④ 송천향(宋千香): 정의향교 교비(校婢). 강시한(康時漢)첩. 종신

수절. 1772년(영조48) 정려.
⑤ 오씨(吳氏): 의귀리. 김창언(金昌彦) 처. 자결. 1812년(순조12) 정려.
⑥ 부씨(夫氏): 고성리(성산) 오극지(吳克智) 처. 자액.
⑦ 정매(貞梅): 법환리. 변종원(邊宗元) 처. 자액.
⑧ 김씨(金氏): 위미리. 김광빈(金光彬) 처. 자액.
⑨ 김씨(金氏): 김정욱(金精旭) 처. 자액. 1782년(정조6) 정려.

(3) 대정현: 5명
① 김씨(金氏): 창천리. 강응주(姜應周) 처. 시모봉양 후 자결. 1781년(정조5) 정려.
② 양씨(梁氏): 상예래리. 임도관(任道寬) 처. 자액.
③ 김씨(金氏): 중문리. 김창은(金昌銀) 처. 자액. 1814년(순조14) 정려.
④ 이씨(李氏): 하예래리. 강응록(姜應祿) 처. 자결.
⑤ 고씨(高氏): 차귀리. 강사철(康士喆) 처. 자액. 1866년(고종3) 신재호(愼載祜) 판관.

(4) 지역미상: 1명
① 홍성(洪姓): 홍범식(洪範植) 딸. 조취승(曺就承) 처. 자결. 1834년(순조34) 첩문.

3) 충의(의사, 의녀)
(1) 제주목: 2명
① 김만덕(金萬德) : 1795년(정조19) 대흉년시 제주민 구휼. 행수내의녀 하사.
② 홍윤애(洪允愛) : 유배인 조정철(조정철) 보호. 1781년(정조5) 고문치사.

(2) 정의현: 1명

① 오흥태(吳興泰) : 난산리(蘭山里). 1728년(영조4) 이인좌의 난 때 의병 모집.

(3) 대정현: 6명

① 양위경(梁渭慶) : 대정(안덕) 창천리. 1811년(순조11) 홍경래 난 때 의병 모집.

② 구제국(具濟國) : 사계리. 1811년(순조11) 홍경래 난 때 의병 모집.

③ 류명록(柳命祿) : 1840(헌종6) 영국 군함의 가파도 침공 때 격전 도모.

④ 오대현(吳大鉉) : 1901년(광무5) 봉세관과 천주교의 폐해 시정 의거. 3의사.

⑤ 강우백(姜遇伯) : 1901년(광무5) 봉세관과 천주교의 폐해 시정 의거. 3의사.

⑥ 이재수(李在守) : 1901년(광무5) 봉세관과 천주교의 폐해 시정 의거. 3의사.

2. 정려비로 확인되는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현재 제주 전역에는 1910년 이전 조선시대의 충·효·열과 관련된 정려비가 71기(77명) 전해진다. 물론 당대에 세워진 비석도 있지만 마모 및 훼손 등으로 인해 후세에 다시 세워진 정려비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애월 곽지리의 김천덕(金天德) 열녀비, 구좌 김녕리 김칭 효자비, 성산 난산리 오흥태(吳興泰) 의사비, 한경 용수리의 절부암(節婦巖, 마애명)에 이르기까지 제주 전역 어디든 정려비가 다수 세워져 있다. 이는 그 자체가 역사이며, 후세에 본보기로 삼을만한 산 교훈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문헌에 전하는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84

명의 사례가 현재 정려비로 남아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려가 내려졌다고 전하는데 문헌에는 소개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료 및 비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작업은 현재 필자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현재 제주 전역에 산재한 조선시대 충·효·열 정려비를 소개하기로 한다. 또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년간 필자는 현장을 답사하며 사진 촬영과 소재지 파악 및 비문 해석 등을 해왔고 필자의 작업과 대비하기 위해 현재까지 편찬된 자료까지 참고하였다.[13]

이상의 자료와 필자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전하는 조선시대 제주의 충·효·열 정려비(각)는 총 71기(77명)로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37명, 여자 40명에 해당한다. 남자는 효자 21기(21명), 충효 4기(6명), 충의 4기(10명)로 총 29기(37명)이며, 여자는 효열 20기(20명), 열녀 20기(18명), 충의 2기(2명)로 총 42기(40명)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기(52명), 서귀포시 21기(27명)가 소재하고 있다.[14] 특히 제주시 북서부 지역인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지역 소재 충효열비가 각각 13기(15명), 14기(14명), 6기(5명)로 총 33기(34명)이어서 제주 전역의 충효열 정려비 중 절반에 해당한다. 내용별로는 효자 21기(21명), 효열 20기(20명), 열녀 20기(18명), 충효 4기(6명), 충의 6기(12명)로 구분된다. 이상을 효자, 효열, 열녀, 충효, 충의의 다섯 주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3) 필자가 참고한 현행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북제주군 비석총람』(북제주군, 2001), ②『탐라의 효자, 열녀전』(제주교육박물관, 2001), ③『제주시 비석일람』(제주시, 2002), ④『남제주 문화유적』(남제주문화원, 2007), ⑤『우리고장의 비석들(2)』(서귀포문화원, 2009), ⑥『제주의 비』(홍순만, 2013), ⑦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www.jejuhistory.co.kr/) 등이다.

14) 열녀 송씨(강시한처)비와 효자 강운비는 원비는 제주시 교육박물관에 소재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는 1971년에 새로 건립된 비석이 세워져 있다. 총 77명 중 위 2명이 중복되어 지역별 인물 총수가 79명으로 되어 있다.

효자비는 총 21기이며, 인원은 21명이다. 강운효자비가 2기(표선면 성읍1리, 교육박물관)인데, 박계곤 효자는 비석이 아닌 정려각(애월읍 신엄리)에 신위봉향 형식으로 모셔져 있다. 1인1기의 효자 19기(19명)를 포함하면 정려비 총수 21기(20명), 정려각 1문(1명)이 현재 전한다. 효열비는 총 20기로 인원은 20명이다. 열녀비는 총 20기인데, 인원은 18명이다. 1인 2기가 2명으로, 송천향 열녀비(표선면 성읍1리, 교육박물관)와 고씨 열녀비(한경면 고산리, 용수리)이다. 또한 열녀 박씨(효자 박계곤의 딸)와 충비 고소락은 각각 1기 1정려문으로 모셔져 있다. 즉 제주시 오등동에 정려비 건립, 애월읍 신엄리에 정려각 봉향이 그것이다. 따라서 열녀는 정려비 총수 18기, 정려각 1문(2명), 인원 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효비는 총 4기인데, 인원은 6명이다. 충효송경천삼부자비(애월읍 금성리)가 1기에 3인을 추모하기 때문이다. 송경천, 송인명, 송의명의 3부자가 그들이다. 따라서 홍달한(성산 수산리), 이필완(애월 금성리), 문달복(대정 무릉리)이 각각 1인 1기이므로 이를 합하면 비석 수는 총 4기이나 인원수는 6명이다. 충의비는 총 6기로 인원은 12명이다. 3인 1기(삼의사비)와 5인 1기(오좌수비) 때문이다. 삼의사비(대정읍 안성리)는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을 추모하며, 오좌수의거비(대정읍 하모리)는 이만송, 이흥복, 정종무, 김성만, 김성일을 추모하고 있다. 따라서 오흥태(성산 난산리), 구제국(대정 상모리), 김만덕(건입동), 홍윤애(애월 유수암리)가 각각 1인 1기이므로 이를 합하면 비석 수는 총 6기이나 인원수는 총12명이다.

이상 조선시대 정려비 71기(77명)의 현재 행정구역별 구분(충효열 주제별 포함)한 것이 다음의 <표 Ⅱ-3>이다.

〈표 II-3〉 조선시대 제주 정려비 행정구역별 구분
(충효열 주제별 구분 포함)

주제		효자	효열	열녀	충효	충의	소계
제주시	행정동	2		6		1	9
	애월읍	2+ 1(정려각)	5	3+ 2(정려각)	2(4명)[15]	1	13(15명)+ 3(정려각)
	한림읍	6	7	1			14
	한경면	3	1	2(1명)[16]			6(5명)
	조천읍	1	2	1			4
	구좌읍	2		1			3
	우도면	1					1
	소계	17+ 1(정려각)	15	14(13명)+ 2(정려각)	2(4명)	2	50(51명)+ 3(정려각)
서귀포시	중문동		2	1			3
	대정읍	1		1	1	3(9명)[17]	6(12명)
	안덕면	1	1				2
	남원읍			3			3
	표선면	1	1	1			3
	성산읍	1	1		1	1	4
	소계	4	5	6	2	4(10명)	21(27명)
총계		21(21명)+ 1(정려각)	20	20(19명)+ 2(정려각)	4(6명)	6(12명)	71(78명)[18] + 3(정려각)

15) 충효비 2기는 애월읍 금성리 소재의 이필완비 1기와 송경천 3부자(아들 송인명, 송의명 포함) 1기이다. 따라서 2기 4명으로 기록하였다.

16) 한경면 강사철 처 절부 고씨는 고산리에 표절비(묘소), 용수리에 절부암 등 1명 2기로 정려되어 있다.

17) 대정읍의 충의비 3기는 하모리의 오좌수의거비(1기 5인)와 안성리의 삼의사비(1기 3인) 및 상모리 구제국의사비(1인 1기)이다. 총 9명을 추모하고 있다.

18)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비석 총계는 71기이며 인원은 78명인데, 효자 강운과 열녀 송천향이 1인2기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중복되어 이들을 제외하면 76명이고, 여기에 정려각 효자 박계곤 1명을 더하면 77명이다. 또한 정려각 3명 중 열녀 박씨와 그녀의 비 고소락 2명은 오등동에 비석이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 제주 전역에 내려진 충효열의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한 전수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 문헌이든 정려비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문화원에서 일부 조사되어 일반에 알려진 것도 2000년대 접어들어서였으나, 그 마저도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 특히 문헌에 소개된 사례까지 정밀 조사하여 분석한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시대 제주 정려의 문화는 비석만 조사하여 파악하면 안 된다. 문헌에 전하는 객관적 사실까지 뒷받침되어야 역사적으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제주 역사를 통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6편의 객관적 사료, 즉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이원진), 『효열록』(김영락), 『탐라지초본』(이원조), 『탐라기년』(김석익), 『증보탐라지』(담수계)에 수록된 조선시대 충효열의 사례를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210회의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 중 다수가 중복된 사례여서 실제는 총 84명(효39, 열36, 충9)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자료와 필자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제주에 내린 조선시대 정려비석은 총 71기(77명)로 파악되었다. 효자 21기(21명), 효열 20기(20명), 열녀 20기(18명), 충효 4기(6명), 충의 6기(12명)로 구분된다. 성별로는 남자 37명, 여자 40명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50기(52명), 서귀포시 21기(27명)가 소재하고 있다.

한편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유림(儒林) 및 마을에서 정려를 내려 세운 정려비가 제주시 11기, 서귀포시 2기 등 총 13기(13명)로 파악되었다. 제주시는 행정동 4기(봉개2, 회천, 일도2동), 한경면 4기(저지, 조수, 산양, 청수), 한림읍 1기, 구좌읍 1기, 추자면 1기이다. 서귀포시 2기는 모두 대정읍에 소재하는 데 구억리와 영락리이다.

일제강점기 정려비 13기(13명)의 충효열 주제별 구분은 효자 7기, 효열 5기, 열녀 1기이다. 효자 7기는 제주시 5기(행정동1, 한경면1, 한림읍1, 추자면1, 구좌읍1), 서귀포시 2기(구억리1, 영락리1)이다. 효열 5기는 모두 제주시(행정동3, 한경2)에 소재하고 있으며, 열녀 1기(열행 현씨) 역시 제주시로 한경면 산양리이다. 이상 일제강점기 정려비 13기의 내용 요약 및 소재지가 다음의 <표 Ⅱ-4>이다.

〈표 II-4〉 일제 강점기 이후 효열비

연번	성격	성명	관계자(남편명)	비제	소재지	정려연도	건립연도	내용
1	효자1	김성완	–	효자김성완 배유인김씨지묘	한경면 저지리	1883 (포)	1887	간병(모친) 할복(割腹)
2	효자2	박창진	–	효자박창진문	대정읍 구억리	1918 (유림 완문)	1978	간병(부모) 절지 3년상
3	효자3	강인홍	–	효자강인홍비	대정읍 영락리	1918 (유림 완문)	1963	봉양(조부)
4	효자4	박명래	–	학생박명래 순효지비	제주시 추자면		1930	간병(부모) 감천식사(꿩) 절지
5	효자5	조광헌	–	효자조광헌 기사비	제주시 일도2동		1930	묘소(부친) 관리 및 고을 시혜
6	효자6	김두현	–	효자강사 초일선생 김두현려	한림읍 대림리	미상	1940	봉양(부모)
7	효자7	박명복	–	박효자명복 기념비	구좌읍 김녕리		1955	간병(부친) 절지 모친 3년상
8	효열1	김씨	이행숙	한량이행숙처 김씨효열지려	제주시 회천동		1916	
9	효열2	박씨	김원겸	가선김원겸실 효열밀양박씨 추모지비	한경면 조수1리		1932	봉양 종신 수절
10	효열3	고씨	강명봉	사인강명봉처 고씨효열지려	제주시 봉개동		1935	간병(남편) 학교 후원
11	효열4	고씨	–	효열고씨송덕비	제주시 봉개동		미상	학교 후원
12	효열5	임칠진	강수남	효열부임칠진 행적비	한경면 청수리		1975	봉양(시모) 종신수절
13	열녀1	현씨	고선옥	유인연주현씨 열행비	한경면 산양리		1963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Ⅲ. 정려비의 내용 및 유형 분석

조선시대 제주에 내린 정려(복호)비는 총 71기(77명)로 파악되었다. 충효열 주제별 구분은 효자 21기(21명), 효열 20기, 열녀 20기(18명)[19], 충효 4기(6명)[20], 충의 6기(12명)[21]이다. 도합 71기 77명을 추모하고 있다. 한편 비석은 아니지만 정려각의 건물에 추모하는 인물도 3명 있었다. 애월읍 신엄리에 소재한 삼정문(三旌門)이 그것인데, 효자 박계곤과 그의 딸 열녀 박씨 및 충비 고소락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정려비의 비문 등을 참고하여 그들을 정려하게 된 이유, 즉 그들의 효행, 열행, 충의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특이사례 등을 소개한다. 정려비 내용 파악 및 유형별 분석은 효자, 효열, 열녀, 충효, 충의의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효자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 71기 중 효자 정려비는 21기(21명)이다. 문헌에 전하며 정려비로도 남아 있는 인물은 총 8명이다. 김칭(김녕리), 진대석(광령리), 강운(성읍1리, 교육박물관), 박계곤(신엄리, 정려각), 현윤경(성산 수산리), 고윤문(두모리), 현원상(봉성리), 김치화(조천리)가 그들이다. 한편 문헌에 전하지는 않고 정려비로만 남아 있는 인물은 총 13명이다. 김명집(귀덕리), 이광엽(대림리), 문달민(무릉2리), 문처웅(옹포리), 김홍조(대림리), 이영조(종달리), 김

19) 열녀 송천향비는 제주시 1기(1907건립, 교육박물관 소재)와 서귀포시 1기(1971건립, 표선면 성읍1리 소재) 등 2기가 소재한다. 또한 절부 고씨비는 제주시 2기(한경면 고산리 표절비,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가 소재한다. 따라서 비석은 20기이나 인원은 18명이다.

20)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송경천 3부자(아들 송인명, 송의명) 충효비 1기는 3명을 정려하고 있다. 따라서 비석은 4기이나 인원은 6명이다.

21) 대정읍 하모리 오좌수의거비는 1기 5명, 안성리 삼의사비는 1기 3명을 추모하고 있다. 따라서 비석은 2기이나 인원은 8명이다.

효순(대림리), 조인철(귀덕리), 고한철(신창리), 고달인(우도 서광리), 양서종(용수리), 현재옥(덕수리), 오몽열(아라동)이 그들이다.

21명의 정려 효자는 거의 대부분 부모 또는 편부모 등을 잘 봉양 또는 간병하여 정려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작지(斫指), 할경(割脛) 등 자기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그 피를 마시게 하거나 약에 타서 드시게 하여 소생 및 연명하는 경우이다.[22] 그 외에 추복 및 시묘 3년상 등 상장제례에 정성을 다하는 경우[23]와 식사 및 제찬 마련에 하늘을 감동시켜(感天)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24] 등이 뒤따른다. 특이 사례로는 애월읍 광령리의 진대석과 한경면 두모리의 고윤문이 있다. 이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효성을 다했던 인물이다. 진대석은 군역 수행 시 모친을 직접 업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 복무하였으며[25], 고윤문은 까다로운 모친의 성격 때문에 결국 혼인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봉양한 경우이다.[26] 이상 21명 효자 정려비(정려각)의 소재지 및 내용 요약이 다음의 <표Ⅲ-1>이다.

---

22) 할경, 작지의 사례는 총 10명이다. 그 인물은 김칭, 현윤경, 김명집, 문달민, 문처웅, 김흥조, 이영조, 김효순, 고달인, 양서종이다.

23) 추복 및 3년상 시묘 등 상장제례에 정성을 다한 사례는 총 4명이다. 그 인물은 강운, 김치화, 조인철, 오몽열이다.

24) 식사 및 제찬 마련에 감천(感天)의 사례는 2명이다. 그 인물은 현원상, 문처웅이다.

25) 김영락, 『효열록』. "어머니는 각기병이 있어서 앉거나 설 때에는 남에게 의지하여야만 하였다. 대석이 번을 서기 위해 들어갈 때나…물러날 때에는 모친을 업고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반드시 먹을 것을 마련해 드렸다. 처자를 두면 모친을 공양하는데 전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장가를 들지 않고 홀로 살면서 손수 밥을 지어 올렸다(母有脚病 坐立須人 大石入番則負來城中…退番則負行諸處 必備所食 而以爲畜妻子則恐養母不專 不娶獨居 手執炊爨)."

26) 김영락, 『효열록』. "어머니 성품이 조급하여 노여워하며, 자주 꾸짖으며 매질이 있을 때마다 앉아서 그 매를 맞았는데, 사람들이 혹 피하라고 권하면, '자식의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어머니의 노여움이 더할까 두렵다.'고 하였다. 나이가 이미 성인이 되어,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 '아내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홀아비로 살면서 몸소 어머니의 뜻을 받드느니만 못하다.'고 하여 한평생 아내를 얻지 아니하였다(母性躁怒 頻有叱笞 坐受其杖 人或勸避則曰 母方盛怒而子若走避則 非但有違子道 恐益母怒也 年旣長人 勸娶妻則曰 如其娶妻而不合母心 不若鰥居而躬 自養志也 終身不娶)."

〈표 III-1〉 효자 정려비(각)

연번	성명	비제명	소재지	정려(복호)	건립	내용	문헌
1	김칭	효자김칭지려	구좌읍 김녕리	1487	1859	봉양(모친) 할경(割脛)	승람,탐라지,효열록,초본,기년,증보
2	진대석	효자진대석(미애명)	애월읍 광령리	1634	2003	봉양(모친) 독신 군역모친병행	탐라지,효열록,초본,기년,증보
3	강운	열녀자효자강운지려	제주시 교육박	1780	1907	봉양(모친)부친추복	효열록,초본,기년,증보
3-1	강운	전력부위강효자정려비	표선면 성읍리	1780	1971	봉양(모친)부친추복	효열록,초본,기년,증보
4	박계곤	효자박계곤지려(삼정문)	애월읍 신엄리	1794	2000	표류_부모이별문자(판자) 국상(숙종) 능역	효열록
5	현윤경	효자유향별감현윤경지려	성산읍 수산리	1814	1860	간병(부친) 작지	효열록,기년,증보
6	고윤문	효자고윤문지려	한경면 두모리	1814	1850	봉양(모친)독신	효열록,초본,기년,증보
7	현원상	현원상효자비	애월읍 봉성리	1822(복)	1992	봉양(부친) 검변 묘소 호곡 감천 제찬(노루)	효열록,기년,증보
8	김치화	효자증가선대부호조참판김치화지려	조천읍 조천리	1885		시묘(3년상)	기년,증보
9	김명집	효자김명집지려	한림읍 귀덕리	1841(복)	1924	간병(부친) 작지	
10	이광엽	효자정략장군이공광엽숙부인 탐라고씨지갈	한림읍 대림리	1841(완)	1984	봉양(부모)	
11	문달민	효자문달민지려	대정읍 무릉2리	1854(복)추	1938	간병(부친) 작지	
12	문처웅	효자천총통정대부문처웅사적비	한림읍 옹포리	1854(완)	1960	간병(모친) 감천 식사(잉어) 작지	
13	김흥조	효자통정대부김흥조숙부인밀양박씨려	한림읍 대림리	1857(완) 1860(포)	1954	간병(부친) 작지	
14	이영조	효자이영조지려	구좌읍 종달리	1859(완)	1909	간병(모친)작지	
15	김효순	효자통정대부김효순지려	한림읍 대림리	1859(완)	1956	간병(부친) 작지	
16	조인철	통정효자조인철지려	한림읍 귀덕리	1861(완)	1941	봉양(부모) 묘소 호곡	
17	고한철	효자고공한철효부전주이씨지려	한경면 신창리	1862(완)	1990	간병(부친) 연창(吮瘡)	
18	고달인	효자고달인지려	우도면 서광리	1869(완)		간병(부친) 작지	
19	양서종	효자양서종지려	한경면 용수리	1906(완)	1910	간병(모친)작지	
20	현재옥	효자현재옥문	안덕면 덕수리	목사(완)	1922	봉양(부모)	
21	오몽열	효자군위오공몽열지려	제주시 아라동	1624	2010	봉양(부모)3년상 여막(부모)	

2. 효열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 71기 중 효열 정려비는 20기(20명)이다. 문헌에 전하며 정려비로도 남아 있는 인물은 총 8명이다. 김씨(조명윤 처, 성읍리), 고씨(김여빈 처, 조천리), 고씨(문명훈 처, 납읍리), 이씨(강응록 처, 중문동), 문씨(송덕보 처, 교래리), 강씨(김창백 처, 금성리), 김씨(강응주 처, 창천리), 김씨(김창은 처, 중문동)가 그들이다. 문헌에 전하지는 않고 정려비로만 남아 있는 인물은 총 12명이다. 고씨(오경인 처, 성산 수산리), 최씨(김광삼 처, 귀덕리), 김씨(김흥복 처, 대림리), 양씨(고영운 처, 금성리), 장씨(임유근 처, 대림리), 좌씨(조사창 처, 금성리), 김씨(고붕익 처, 수원리), 장씨(고정언 처, 금성리), 고씨(진명서 처, 용수리), 이씨(김려관 처, 귀덕2리), 윤씨(하용우 처, 대림리), 고씨(정연집 처, 한수리)이다.

20명의 효열(부)는 거의 대부분 봉양(시부모) 또는 간병(남편)을 잘하여 정려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종신수절하며 시부모나 남편을 봉양하고 간병하는 경우이다.[27] 그 외에 남편을 간병하면서 작지, 할경 등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그 피를 마시게 하거나 약에 타서 드시게 하여 소생 및 연명하는 경우이다.[28] 또한 시부모 봉양 후 자결하는 경우도 있었다.[29] 특이 사례로는 조천읍 북촌리의 김여빈 처 고씨와 애월읍 금성리의 고정언 처 장씨가 있다. 고씨는 표류한 남편의 시신이 중국에서 발견되어 의주로 이송되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제주를 떠나 평안도 의주까지 가서 직접 시신을 운구하여 제주로 돌아왔다. 특히 의주부윤과 경기

27) 시부모 및 남편을 봉양, 간병하며 종신 수절한 사례는 총 10명이다. 그 인물은 고씨(오경인처), 최씨(김광삼처), 양씨(고영운처), 장씨(임유근처), 좌씨(조사창처), 김씨(고붕익처), 장씨(고정언처), 이씨(김려관처), 윤씨(하용우처), 고씨(정연집처)이다.

28) 할경, 작지의 사례는 총 5명이다. 그 인물은 고씨(문명훈처), 김씨(김흥복처), 장씨(임유근처), 고씨(진명서처), 고씨(정연집처)이다.

29) 시부모 봉양 및 자결의 사례는 총 5명이다. 그 인물은 강씨(김창백처), 김씨(강응주처), 김씨(김창은처), 문씨(송덕보처), 이씨(강응록처)이다.

도관찰사는 고씨의 상황을 알고 노자돈과 역마를 내려 시신 운구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 주었다.[30] 장씨는 남편 간병, 남편 사후 시모 봉양, 1907년 국채보상운동 시 기부 등 '효, 열, 충' 삼덕을 지녀 정려되었다.[31] 이상 20명 효열 정려비의 소재지 및 내용 요약이 다음의 <표 Ⅲ-2>이다.

30) 「故金汝彬妻高氏若其男金才明烈孝碑(文)」. "…遂携十三歲幼孤才明 轉轉行乞 到得三千里之義州 斂束遺骸 或負或戴而歸 義尹畿伯 咸加矜賞 賻財縣傳…." 한편 김여빈처 고씨의 비문은 1933년 부해 안택승이 지었다. 고씨의 아들 김재명의 외손인 한백흥이 제주 출신 유학자로서 전남 장성에 가 있던 부해에게 직접 가서 부탁하여 받아 온 글이다(…使才明獅孫韓伯興 越海請所刻 以不佞舊居濟也 誼豈忍辭…歲癸酉維夏 浮海逸人 安宅承記).

31) 「通政大夫高廷彦 忠孝烈張氏之閭」(碑文). "남편의 병이 오래 지속되므로 하늘에 자기 몸으로 대신하기를 기원하였으나 하늘이 목숨을 연장해 주지는 못했다. 슬픔과 서러움이 도에 지나쳤으나 늙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효성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고 돌아가실 때는 한 결 같이 예제를 따랐다. 정미년(1907)의 국용 때에는 수의를 팔아 돈을 기부했다. 이는 남편에게는 열이고 시어머니에게는 효이며 임금에게는 충이다(其夫病延 祈天身代 天不假年 哀戚過度 老姑在堂 孝無不至 及其命終一從禮制 丁未國用 賣襚捐金 寔爲烈於夫 孝於姑 忠於君也)."

〈표 III-2〉 효열 정려비

연번	성명	관계자 (남편)	소재지	비제명	정려 (복호)	건립	내용	문헌
1	강씨	김창백	애월읍 금성리	김해후인김창백처효열진주강씨지려	1780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2	김씨	김창은	서귀포 중문동	처사김공창은지처효열경주김씨지려	1814	1963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3	고씨	오경인	성산읍 수산리	효열고씨지려	1822	1843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4	문씨	송덕보	조천읍 교래리	한량송덕보처문씨효열지려	1862	1950	자결 관 표면(海藻螺角)	효열록,기년,증보
5	최씨	김광삼	한림읍 귀덕리	학생김광삼처효열최씨지려	1822(완)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감천 제(시부)찬(꿩)	
6	김씨	김흥복	한림읍 대림리	처사김흥복처효열김씨지려	1841(복)	1930	봉양(시부모) 간병(시모) 할경(割脛)	
7	양씨	고영운	애월읍 금성리	처사고영운처효열양씨지려	1878(포)		간병(남편) 종신 수절	
8	장씨	임유근	한림읍 대림리	처사임유근처효열장씨지려	1881(완)	1937	간병(남편) 절지 종신 수절	
9	고씨	문명훈	애월읍 납읍리	학생문명훈처효열고씨지려	1884(완)		간병(남편) 절지	증보
10	좌씨	조사창	애월읍 금성리	처사조사창실효열좌씨지려	1901(포)	1939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11	김씨	고붕익	한림읍 수원리	처사고붕익처효열김씨지려	1904(포)	1904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12	이씨	강응록	서귀포 중문동	처사강응록지처효열유인이씨지비	미상	1931	자결	효열록
13	고씨	진명서	한경면 용수리	효열탐라고씨지려	미상(완)	1942	간병(남편) 절지 할고(割股)	
14	이씨	김려관	한림읍 귀덕2리	통정김려관처효열이씨지려	미상(완)	1955	종신 수절	
15	윤씨	하용우	한림읍 대림리	처사하용우처효열윤씨지려	미상(완)	1946	봉양(시부) 종신 수절 일문삼효부자	
16	고씨	정연집	한림읍 한수리	가선대부정연집효열정부인고씨	미상 (유림 포)		간병(남편) 절지 종신 수절	
17	김씨	강응주	안덕면 창천리	처사강응주지처절효유인김씨지려	1781		봉양(시모)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18	고씨	김여빈	조천읍 북촌리	고김여빈처고씨약기남김재명 열효비	1864 (미육하사)	1933	시신 운구(남편 의주~제주)	증보
19	김씨	조명윤	표선면 성읍리	증가선대부호조참판조명윤처 효부정부인김씨지정려	1891		봉양(시부)	증보
20	장씨	고정언	애월읍 금성리	통정대부고정언충효열장씨지려	1907(포)		봉양(시모) 종신 수절 기금후원(국채보상)	

3. 열녀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 71기 중 열녀 정려비는 20기(18명)이다. 문헌에 전하며 정려비로도 남아 있는 인물은 총 16기(14명)이다. 정씨(석곡리보개 처, 한남리), 김천덕(연근 처, 곽지리), 국지(홍질 첩, 신촌리), 송씨(강시한 처, 성읍리&교육박물관), 오씨(강위보 처, 봉성리), 김씨(김정욱 처, 위미리), 박씨(이항춘 처, 오등동&신엄리), 고소락(열녀 박씨 비, 오등동&신엄리), 오씨(김창언 처, 태흥2리), 박씨(손처권 처, 장전리), 김씨(오융복 처, 아라동), 양씨(전형원 처, 아라동), 양씨(임도관 처, 중문동), 고씨(강사철 처, 고산리&용수리)가 그들이다. 문헌에 전하지는 않고 정려비로만 남아 있는 인물은 총 4기(4명)이다. 한씨(김영은 처, 월정리), 오씨(박성림 처, 신평리), 송씨(양기석 처, 봉개동), 김씨(김맹원 처, 귀덕1리)이다.

18명의 열녀(열부)는 거의 대부분 남편이 죽은 후 자결하거나 종신 수절하는 경우였다.[32] 특이 사례로는 남원읍 한남리의 석곡리보개 처 정씨와 애월읍 곽지리의 연근 처 김천덕 및 봉개동의 양기석 처 송씨가 있다. 정씨는 유일하게 고려 때 인물로 1374년(공민왕 23) 최영 장군의 목호 토벌로 남편이 숨지자 종신토록 절개를 지킨 인물로 문헌상 전하는 인물로는 최초의 사례이다.[33] 김천덕은 역시 남편이 숨지자 종신 수절한 인물인데 부친의 개가 회유도 거절했을 뿐 아니라 후에 효녀로까지 칭송받았다. 특히 1577년(선조 10) 제주

32) 정려된 열녀는 종신수절과 자결의 경우로 각각 9명이 있다. 전자로는 정씨(석곡리보개처), 김천덕(연근처), 국지(홍질첩), 송씨(강시한처), 박씨(이항춘처), 고소락(박씨 비), 한씨(김영은처), 오씨(박성림처), 송씨(양기석처)가 있으며, 후자는 오씨(강위보처), 김씨(김정욱처), 오씨(김창언처), 박씨(손처권처), 김씨(오융복처), 양씨(전형원처), 양씨(임도관처), 고씨(강사철처), 김씨(김맹원처)이다. 후자에서 김맹원처 김씨는 남편 사후 시부모 봉양하다 시부모상 후 자결한 경우이다.

33) 석곡리보개 처 정씨는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소개된 이래, 1953년 편찬된 『증보탐라지』(담수계)까지 모든 역사지지서에 기술되어 있는 열녀이다.

에 내려왔던 조선의 대문호 백호 임제가 그의 얘기를 전해 듣고 「열녀 천덕전」을 지었는데, 그의 문집인 『남명소승』에 내용이 전한다.[34] 봉개동의 열부 송씨는 남편이 종숙 댁으로 양자 들자 생가와 양가의 시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남편을 받들었는데, 남편이 죽자 종신수절하면서 두 분 시모를 봉양하였다.[35] 이상 18명 열녀 정려비의 소재지 및 내용 요약이 다음의 <표 Ⅲ-3>이다.

34) 임제는 천덕전의 말미에 자신의 소회를 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남명소승』, 1577년 11월 27일). "아! 세상의 소위 남자라는 것들은 오로지 이해관계에만 급급하여 심지어는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친구간에도 서로 배반한다. 더 크게는 나라가 멸망할 때와 위급한 즈음에 당해서 나라를 파는 자, 임금을 잊는 자도 있다. 천덕의 죄인이 되지 않는 자 극히 드물 것이다. 슬픈 일이로다(嗚呼 世之所謂男子者 一利害之間 而至於兄弟而相鬪 朋友而相倍 大則板蕩之時 危亂之際 賣國者有焉 忘君者有焉 而其不爲千德之罪人者鮮矣 可哀也哉)."

35) 「烈婦礪山宋氏之遺墟」(碑文). "열부 송씨는 (봉개동) 양기석에게 시집갔다. 남편이 종질로서 종숙 댁에 양자 들자 생가와 양가의 시어머니 두 분이 생존하였고 집은 매우 가난하였다. 열부는…진심으로 두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받들어 부녀의 도리를 잘 갖추었다(及嫁梁氏 作基釋婦 基錫以從姪繼從叔後 生繼兩母俱存 家甚窶 烈婦…誠事兩姑禮奉君子)." 한편 송씨의 비문은 1917년 부해 안병택(후에 안택승으로 개명)이 지었다.

〈표 III-3〉 열녀 정려비

연번	성명	관계자 (남편)	소재지	비제명	정려 (복호)	건립	내용	문헌
1	정씨	석곡리보개	남원읍 한남리	열녀정씨지비	미상	1834	종신 수절	승람,탐라지,효열록, 초본,기년,증보
2	김천덕	연근	애월읍 곽지리	열녀사비김천덕지려	1577	1863	종신 수절	남명소승,탐라지, 효열록,기년,증보
3	국지	홍질	조천읍 신촌리	열녀사비국지지려	1634	1928	종신 수절	탐라지,효열록,초본, 기년,증보
4	송씨	강시한	제주시 교육박	열녀송씨천향지려	1772	1907	종신 수절	효열록,초본,기년,증보
4-1	송씨	강시한	표선면 성읍리	숙부인여산송열녀정려비	1772	1971	종신 수절	효열록,초본,기년,증보
5	오씨	강위보	애월읍 봉성리	학생강위보처열녀군위오씨지려	1780	1913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6	김씨	김정옥	남원읍 위미리	열부김씨지려	1782	1934	자결	초본,증보
7	박씨	이항춘	제주시 오등동	향리이항춘처열녀박성지려	1794	1867 (추)	종신 수절	효열록,초본,기년,증보
7-1	박씨	이항춘	애월읍 신엄리	열녀박씨지려(삼정문)	1794	2000	종신 수절	효열록,초본,기년,증보
8	고소락	열녀 박씨	제주시 오등동	충비고소락지려	1794	1867	종신 불가(不嫁)	효열록,초본,기년,증보
8-1	고소락	열녀 박씨	애월읍 신엄리	충비고소락지려(삼정문)	1794	2000	종신 불가(不嫁)	효열록,초본,기년,증보
9	오씨	김창언	남원읍 태흥2리	열부군위오씨비려	1812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10	박씨	손처권	애월읍 장전리	학생손처권처열녀박씨지려	1816	1888	자결	효열록,초본,증보
11	김씨	오용복	제주시 아라동	열녀학생오용복처유인광산김씨지려	1816	1876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12	양씨	전형원	제주시 아라동	열녀처사전형원처유인제주양씨지려	1816	1894	자결	효열록,초본,기년,증보
13	고씨	강사철	한경면 고산리	업무강사철처고씨표절비	1867(관관 제)	1867	자결	기년,증보
13-1	고씨	강사철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	1867(관관 제)	1867	자결	기년,증보
14	한씨	김영은	구좌읍 월정리	열녀한씨지비	1900(완)	1999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15	오씨	박성림	대정읍 신평리	열녀오씨지문	1900(완)	1941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16	송씨	양기석	제주시 봉개동	열부여산송씨지유허		1917	봉양(시모, 양자시모) 종신 수절	
17	김씨	김맹원	한림읍 귀덕1리	처사김맹원처정열김씨지려	미상	미상	봉양(시부모) 시부모상 후 자결	
18	양씨	임도관	서귀포 중문동	처사임도관지처절행유인양씨지려	미상	1963	자결	효열록,초본,증보

4. 충효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 71기 중 충효 정려비는 4기(6명)이다. 문헌에 전하며 정려비로도 남아 있는 인물은 총 3기(5명)이다. 홍달한(성산 수산리), 이필완(금성리), 송경천 3부자(금성리)가 그들이다. 문헌에 전하지는 않고 정려비로만 남아 있는 인물은 총 1명인데, 문달복(무릉2리)이다. 이들은 효자이면서 나라(임금)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충효'의 정려를 받았다. 특히 '충'의 정려는 대부분 국상이 발생했을 때 그 임금을 기리는 3년복을 시행했거나, 먼 제주에서 직접 상경하여 능역 등에 참가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홍달한은 모친을 봉양하며 검변, 작지의 정성을 다했고 돌아가시자 3년 여막 생활을 했으며, 어려서 여읜 부친에 대해 3년상까지 추복한 효자이다. 여기에 1720년 및 1724년 각각 숙종과 경종의 국상 때 3년상의 복제를 행하며 삭망 때마다 북향호곡하니 나라(임금)에 대한 충성까지 겸비했다 하여 정려되었다.[36] 이필완과 문달복은 각각 효자로서 영조와 철종의 국상 때 직접 상경하여 능역에 참가함으로써 '충'의 정려를 받은 사례다.[37] 송경천, 송인명, 송의명 삼부자

---

36) 『영조실록』 권35, 영조 9년(1733) 7월 14일(계사). "정의현 사람 홍달한을 포상하였다. 홍달한은 효성으로 어미를 섬겼다. 어미가 종기를 앓자 입으로 빨아내고 병이 심하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먹였으며) 똥을 맛보았다. 국상을 만나면 문득 술과 고기를 철폐하고 초하루, 보름과 상제나 담제에는 북쪽을 바라보고 울부짖었으므로, 어사 심성희가 그의 충효를 장계하여 포상하였다(褒賞旌義縣人洪達漢. 達漢事母孝, 母患腫吮之, 病欲割指嘗糞. 遭國哀, 輒廢酒肉, 朔望祥禫, 北望號泣, 御史沈聖希狀褒其忠孝)." 또한 그 후 영조 22년(1746) 7월 28일) 『영조실록』 권35)에도 홍달한에게 가자(加資)의 명이 내려졌다.

37) 「忠孝嘉善大夫李公弼完之閭」(碑文). "충효는 인륜의 대본이다. 공은 유복자로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었고 아버지를 위해 추후로 상복을 입었는데, 제사에 올리는 제물에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였다.… 병신년(1776, 영조 52) 대상(영조 국상)에는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6월에 상경하여 능역의 흙짐을 지고 뛰어난 역량으로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궤장의 은전을 내려 탐라의 이름을 떨쳤다(夫忠孝人倫之大者也

는 갑인년(1794) 흉년 때 국은을 입어 나라에 보답할 뜻을 품다가 진상품 수송선에 함께 자원하여 출륙하였다. 이들은 진상선이 표류하여 중국 소주부(蘇州府) 지경에 표착하였는데, 귀국길에 부친인 송경천이 죽자 두 아들이 부친의 시신을 정성스레 모시며 고향 제주까지 모셔와 선영에 묻었다.[38] 이리하여 이들에게 '충효'의 정려가 내린 것이다. 이상 4기(6명) 충효 정려비의 소재지 및 내용 요약이 다음의 <표 Ⅲ-4>이다.

5. 충의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 71기 중 충의 정려비는 6기(12명)이다. 문헌에 전하며 정려비로도 남아 있는 것은 총 5기(7명)이다. 오흥태(난산리), 구제국(상모리), 삼의사(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안성리), 김만덕(건입동), 홍윤애(유수암리)가 그들이다. 문헌에 전하지는 않

公以遺腹子 事母至孝 爲父追喪 祭奠必誠…丙申大喪 年踰八耋 六月上京負土陵役 勇力盡忠 恩重几杖 名振耽羅).”; 「忠孝文達福之閭」(碑文).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장차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진지하고 간절하였다. 어머니가 병이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니 곧 다시 살아났다.…또 철종 계해년(1863) 국장 장례 때 몸을 일으켜 바다 건너 흙을 짊어질 일을 원하여 도감소에 가서 호소한 즉 나라를 위하는 충성한 백성이라고 특별히 찬미하였고, 제주목에서 즉시 포양하였다(幼失父親 將母奉養之節 自來勤懇 母親得病垂死之境 斷指飮血 旋復回甦…又哲宗戊寅 國恤因山時 挺身航海願擔土役 往控于都監所 則特爲讚美爲國之忠民 而自本牧卽爲褒揚).” 한편 문달복의 비문 중 철종 무인년은 계해년의 오각(誤刻)으로 보인다.

38) 「忠孝宋擎天仁明義明(三父子)之閭」(碑文). “소주부 지경에 표박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공은 연로하여 마음을 가다듬었으나 불행히 봉황성에서 죽었으므로 형제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혹은 메거나 혹은 업고서 산과 바다 만여 리를 돌아온 뒤 선영의 곁에 장사지내었다(…漂泊於蘇州府界 遠歸之路公以年老又■於路■■■■■ 兄弟泣血抱屍或擔或負 山海萬餘里…).” 위 비문의 해석문은 『북제주군 비석총람』(2001, 251~252쪽)을 참고하였으나 비문 원문 일부가 잘못 기록되어 필자가 직접 비문을 해독하여 표기하였다.

고 정려비로만 남아 있는 것은 총 1기(5명)이다. 대정읍의 오좌수(이만송, 이흥복, 정종무, 김성만, 김성일, 하모리)가 그들이다.

'충의'는 '의사'와 '의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오흥태, 구제국, 삼의사, 오좌수이며, 후자는 김만덕, 홍윤애이다. 오흥태와 구제국은 각각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과 1811년(순조 11) 홍경래의 난 때 의병을 소집하여 육지로 진출하려다,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위에 그친 인물들이다. 차후 조정에서 이들의 뜻을 기려 '의사'로 정려하였다.[39] 오좌수(1887)와 삼의사(1901)는 각각 일본(어부)의 약탈 및 외세(프랑스) 침략에 저항하는 대정 지역민의 의식을 드러내어 후손에 큰 교훈을 남긴 인물들이다.[40] 김만덕과 홍윤애는 각각 '제주민 구휼'[41]과 '유배인(조정철) 보호'[42]로 후세의 본보기

39) 오흥태는 1794년(정조 18) 어사 심낙수가 조정에 아뢰어 정려되었는데(『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4월 22일.), 현재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정려비는 그 해 7월 심낙수 어사가 교서를 받들어 글을 지어 건립한 것이다. 구제국은 1817년(순조 17) 백성들의 호소와 동리에서의 보고에 의해 복호되었다(『효열록』)고 한다.

40) 오좌수는 1887년(고종 24) 8월 모슬포에 상륙해 약탈을 자행하던 일본 선원과 격투를 벌이다 사상당한 사례로 그 용기를 높이 사 조정에서 좌수의 호칭을 내렸다(강만생,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 3, 1986). 삼의사는 1901년 3월 봉세관의 폐해와 천주교 교세 확산에 맞서 항쟁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제주성을 함락시키고 폐해를 일으킨 무리들을 처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천주교 신도들도 다수 희생되었다. 삼의사는 차후 황기연 찰리사의 진압군대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뒤 처형당하였다(김석익, 『탐라기년』 ; 담수계, 『증보탐라지』).

41) 김석익, 『탐라기년』 (1795년, 정조 19 봄). "이해 봄 도내 큰 기근이 드니 김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다. 목사가 이를 어질게 여겨 보고하였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음에 대답하여 말하길 '번화한 서울과 금강산의 절경을 보고자 할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정승 채제공이 만덕을 위하여 전기를 썼다(是年春 島內大飢 萬德傾財運穀 濟活甚衆 牧使賢之以聞 王問何所欲 對曰願見京華 金剛之勝而已…蔡相濟恭爲之立傳)." 현재 제주시 건입동 모충사내 전시관 서쪽에 그의 묘비가 세워 있다. 묘비 말미에 1812년(순조

가 될 만한 굳은 의지를 널리 떨쳐 '의녀'로 추모되었다. 이상 6기(12명) 충의 정려비의 소재지 및 내용 요약이 다음의 <표 Ⅲ-5>이다.

〈표 III-4〉 충효 정려비

연번	성명	소재지	비제명	정려(복호)	건립	내용	문헌
1	홍달한	성산읍 수산리	충효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 홍공달한지려	1749		봉양(모친) 검변 절지 부친추복 국상(숙종)	효열록, 초본, 기년, 증보
2	이필완	애월읍 금성리	충효가선대부이공필완지려	1781(복) 1862(정)	1965	봉양(모친) 부친추복 국상(영조) 능역	효열록, 초본, 기년, 증보
3	송경천 (3부자)	애월읍 금성리	충효송경천의명인명삼부자지려	1822(복) 1852(정)		3부자표류 시신운구(부친 소주부~제주)	효열록
4	문달복	대정읍 무릉 2리	충효문달복지려	1854(복)	1938	간병(모친) 절지 국상(철종) 능역	

12) 10월에 임종하여 11월에 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다.

42) 「洪義女之墓」(碑陰). "정조 정유년(1777, 정조 1)에 내(조정철)가 죄에 연루되어 탐라에 안치되었다. 홍의녀가 때때로 나의 적거에 출입하였는데 신축년(1781, 정조 5) 간사한 사람이 의녀를 미끼로 하여 나를 얽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기미가 없자 돌연 피와 살이 낭자하게 고문하였다. 의녀가 말하기를 '공의 삶은 나의 죽음에 있습니다.'하고는 결국 불복하고, 절개를 지켜 죽으니 윤5월 15일이었다. 그 후 31년 만에 내가 임금의 은혜를 입고 방어사로 제주에 와서 네모진 묘역을 만들었다(正宗丁酉 余以罪置耽羅 義女時出入余謫 辛丑壬人欲搆余以義女作餌殺 機墮突血肉狼藉 義女曰 公之生在我一死 旣不服又雉懸而殉 閏五之十五日也 後三十一年 余蒙 恩以防禦來鎭 玆方象設墓道)." 위의 비문은 홍윤애가 보호했던 유배인 신분의 조정철이 차후 제주목사가 되어 그의 무덤을 찾아와 직접 지은 것으로 묘비 후면에 새겨 있다. 현재의 묘비는 묘소가 원래 있었던 제주시 전농로에서 유수암리로 옮긴 직후인 1940년 4월 15일 세운 것이다.

〈표 III-5〉 충의 정려비

연번	성명	비제명	소재지	정려	건립	내용	문헌
1	오흥태	의사오흥태지려	성산읍 난산리	1794		의병 모집 1728년 (영조 4) 이인좌 난	효열록, 초본, 기년,증보
2	구제국	구제국의사비	대정읍 상모리	1817	1985	의병 모집 1811년 (순조 11) 홍경래 난	효열록, 기년, 증보
3	오좌수	오좌수의거비	대정읍 하모리		2009	일본어부와 격투 1887년 (고종 24)이만송, 이흥복, 정종무, 김성만, 김성일	
4	삼의사	제주대정삼의사비	대정읍 안성리		1997	봉세관 천주교 폐해 시정 1901년(광무 5)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기년, 증보
5	김만덕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비)	제주시 건입동	1795	1812	제주민 구휼 1795년 (정조 19)	초본, 기년, 증보
6	홍윤애	홍의녀지묘(비)	애월읍 유수암리		1940	유배인(조정철) 보호 1781년 (정조 5)	증보

Ⅳ. 정려비의 소재지 분석

조선시대 제주에 내린 정려(복호)비는 총 71기(77명)이다. 이 비들이 제주 전역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그 실태조사가 아직까지 미흡

한 상태로 남아 있다. 정려비는 대체로 정려문과 함께 세운다. 정려문은 국가에서 풍속을 권장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자 그 사람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문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이다. 조선에서 효열의 정문을 내린 최초의 사례는 1431년(세종 13) 6월이었다. 강원감사 고약해(高若海)가 도내 효자, 열녀의 11사례를 올려 임금께 주청하자, 임금이 예조에 내려 정문을 내리도록 하였다.[43]

따라서 정려비는 마을 입구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주의 정려비 역시 대체로 마을 입구에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로 개설 및 시대 변화에 따라 도로변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비석거리 형태로 이설한 경우도 확인된다.[44] 또한 문중 및 후손들에 의해 원래 장소에서 그들의 선산 등으로 이설한 경우도 있다.[45] 이런 경우 해당 인물 뿐 아니라 그 마을까지 나라에서 내렸던 영예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려 후손들에게 역사의 망각을 안겨 주는 꼴이 되어 우려된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다.

---

43)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6월 25일(정사). "강원도 감사 고약해가 아뢰기를, 부모를 섬기고 상제를 삼가하여 효행이 온전히 갖춘 자와, 남편이 죽었으되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굳게 지키며, 시부모 섬기기에 효성을 다한 자를 삼가 아래에 기록하오니, 청컨대 정문을 세워 풍속을 가다듬게 하옵소서(江原道監司高若海啓 事父母 謹喪祭 孝行全備者 夫亡守信 固守貞節 事舅姑盡孝者 謹錄于後 請旌表門閭 以礪風俗)."

44)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와 한림읍 대림리 등이 대표적이다. 금성리는 충효 이필완, 송경천 3부자 및 효열 강씨(김창백처), 양씨(고영운처), 장씨(고정언처) 등 5기는 금성리 노인복지회관 남쪽에 모여서 세워 있고, 효열 좌씨(조사창처) 1기가 이곳에서 동쪽으로 100m되는 지점에 세워 있어 총 6기가 비석군의 형태로 되어 있다. 대림리 역시 수원주유소 남쪽 50m되는 속칭 달가름 동산에 효자 김효순 및 효열 김씨(김흥복처), 윤씨(하용우처) 3기 외에 일제강점기 효자 김두현 비까지 총 4기가 모여 있다.

45)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 세워 있던 절효 김씨(강응주처) 정려비는 후손에 의해 현재 하원동 진주 강씨 창천파 종중묘로 이설되었다. 남원읍 위미리에 있던 열부 김씨(김정욱처) 정려비 역시 후손에 의해 선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해당 마을에서 보존,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아 중간에 철폐되거나 방기되어 훼손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비석이라도 잘 보존하고자 이설해버리는 경우이다. 아무튼 해당 인물과 마을 모두에게 잊혀진 역사(현장)가 되면서 과거가 망실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 향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행정구역별 소재지 현황

조선시대 정려비 71기의 현재 행정구역별 구분은 제주시 50기, 서귀포시 21기이다. 조선시대 정려비 71기의 충효열 주제별 구분은 효자 21기(21명), 효열 20기, 열녀 20기(18명), 충효 4기(6명), 충의 6기(12명)이다. 제주시는 애월읍 13기[1기 3인(송경천 3부자) 포함 인원은 15명], 한림읍 14기, 행정동 9기, 한경면 6기, 조천읍 4기, 구좌읍 3기, 우도면 1기의 순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6기, 성산읍 4기, 남원읍, 표선면, 행정동은 각각 3기, 안덕면 2기의 순이다.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명단을 포함하여 주제별, 행정구역별로 4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표 Ⅳ-1> 제주시1(행정동) 정려비, <표 Ⅳ-2> 제주시2(애월읍) 정려비, <표 Ⅳ-3> 제주시3(한림읍) 정려비, <표 Ⅳ-4> 제주시4(한경면+조천읍+구좌읍+우도면) 정려비, <표 Ⅳ-5> 서귀포시 정려비이다.

〈표 Ⅳ-1〉 제주시1(행정동) 정려비

소재지		성격	성명	관계자(남편)	비제	정려연도	건립연도	내용
제주시	이도2동	효자	강운	강운	열녀자효자강운지려	1780	1907	봉양(모친)부친추복
	아라동	효자	오몽열	오몽열	효자군위오공몽열지려	1624	2010	봉양(부모) 3년상 여막(부모)
	이도2동	열녀	송씨	강시한	열녀송씨천향지려	1772	1907	종신 수절
	오등동	열녀	박씨	이항춘	향리이항춘처열녀 박성지려	1794	1867 (추)	종신 수절
	오등동	열녀	고소락	열녀 박씨	충비고소락지려	1794	1867	종신 불가(不嫁)
	아라동	열녀	김씨	오융복	열녀학생오융복처유인 광산김씨지려	1816	1876	자결
	아라동	열녀	양씨	전형원	열녀처사전형원처유인 제주양씨지려	1816	1894	자결
	봉개동	열녀	송씨	양기석	열부여산송씨지유허		1917	봉양(시모, 양자시모) 종신 수절
	건입동	충의	김만덕	김만덕	행수내의녀 김만덕지묘(비)	1795	1812	제주민 구휼 1795년 (정조 19)

〈표 Ⅳ-2〉 제주시2(애월읍) 정려비

소재지		성격	성명	관계자(남편)	비제	정려 연도	건립 연도	내용
애월읍	광령리	효자	진대석	진대석	효자진대석(마애명)	1634	2003	봉양(모친) 독신 군역모친병행
	봉성리	효자	현원상	현원상	현원상효자비	1822(복)	1992	봉양(부친) 검변 묘소 호곡 감천 제찬(노루)
	신엄리	효자	박계곤	박계곤	효자박계곤지려(삼정문)	1794	2000	표류 부모이별문자(판자) 국상(숙종) 능역
	금성리	효열	장씨	고정언	통정대부고정언충효열장씨 지려	1907(포)		봉양(시모) 종신 수절 기금후원(국채보상)
	금성리	효열	강씨	김창백	김해후인김창백처효열 진주강씨지려	1780		자결
	금성리	효열	양씨	고영운	처사고영운처 효열양씨지려	1878(포)		간병(남편) 종신 수절
	금성리	효열	좌씨	조사창	처사조사창실효열 좌씨지려	1901(포)	1939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납읍리	효열	고씨	문명훈	학생문명훈처효열 고씨지려	1884(완)		간병(남편) 작지
	곽지리	열녀	김천덕	연근	열녀사비 김천덕지려	1577	1863	종신 수절
	봉성리	열녀	오씨	강위보	학생강위보처열녀 군위오씨지려	1780	1913	자결
	신엄리	열녀	박씨	이항춘	열녀박씨지려(삼정문)	1794	2000	종신 수절
	장전리	열녀	박씨	손처권	학생손처권처열녀 박씨지려	1816	1888	자결
	신엄리	열녀	고소락	열녀 박씨	충비고소락지려 (삼정문)	1794	2000	종신 불가(不嫁)
	금성리	충효	이필완	이필완	충효가선대부 이공필완지려	1781(복) 1862(정)	1965	봉양(모친) 부친추복 국상(영조) 능역
	금성리	충효	송경천	송인명 송의명	충효송경천의명인명삼부자 지려	1822(복) 1852(정)		3부자표류 시신운구 (부친 소주부~제주)
	유수암리	의녀	홍윤애	홍윤애	홍의녀지묘(비)		1940	유배인(조정철) 보호 1781년(정조 5)

〈표 Ⅳ-3〉 제주시3(한림읍) 정려비

소재지		성격	성명	관계자 (남편)	비제	정려 연도	건립 연도	내용
한림읍	귀덕리	효자	김명집	김명집	효자김명집지려	1841(복)	1924	간병(부친) 작지
	귀덕리	효자	조인철	조인철	통정효자조인철지려	1861(완)	1941	봉양(부모) 묘소 호곡
	대림리	효자	이광엽	이광엽	효자정략장군이공광엽 숙부인탐라고씨지갈	1841(완)	1984	봉양(부모)
	대림리	효자	김흥조	김흥조	효자통정대부김흥조숙부인 밀양박씨려	1857(완) 1860(포)	1954	간병(부친) 작지
	대림리	효자	김효순	김효순	효자통정대부김효순지려	1859(완)	1956	간병(부친) 작지
	옹포리	효자	문처웅	문처웅	효자천총통정대부문처웅사적비	1854(완)	1960	간병(모친) 감천 식사(잉어) 작지
	귀덕2리	효열	이씨	김려관	통정김려관처효열이씨지려	미상(완)	1955	종신수절
	귀덕리	효열	최씨	김광삼	학생김광삼처효열최씨지려	1822(완)		봉양(시부모) 종신수절 감천 제(시부)찬(꿩)
	대림리	효열	김씨	김흥복	처사김흥복처효열김씨지려	1841(복)	1930	봉양(시부모) 간병(시모) 할경(割脛)
	대림리	효열	장씨	임유근	처사임유근처효열장씨지려	1881(완)	1937	간병(남편) 작지 종신수절
	대림리	효열	윤씨	하용우	처사하용우처효열윤씨지려	미상(완)	1946	봉양(시부) 종신수절 일문삼효부자
	수원리	효열	김씨	고붕익	처사고붕익처효열김씨지려	1904(포)	1904	봉양(시부모) 종신수절
	한수리	효열	고씨	정연집	가선대부정연집효열정부인고씨	미상 (유림 포)		간병(남편) 작지 종신수절
	귀덕1리	열녀	김씨	김맹원	처사김맹원처정열김씨지려	미상	미상	봉양(시부모) 시부모상 후 자결

〈표 Ⅳ-4〉 제주시4(한경면+조천읍+구좌읍+우도면) 정려비

소재지		성격	성명	관계자(남편)	비제	정려연도	건립연도	내용
한경면	두모리	효자	고윤문	고윤문	효자고윤문지려	1814	1850	봉양(모친)독신
	신창리	효자	고한철	고한철	효자고공한철효부전주이씨지려	1862(완)	1990	간병(부친) 연창(吮瘡)
	용수리	효자	양서종	양서종	효자양서종지려	1906(완)	1910	간병(모친)작지
	용수리	효열	고씨	진명서	효열탐라고씨지려	미상(완)	1942	간병(남편) 작지 할고(割股)
	고산리	절부	고씨	강사철	업무강사철처고씨표절비	1867(판관 제)	1867	자결
	용수리	절부	고씨	강사철	절부암	1867(판관 제)	1867	자결
조천읍	조천리	효자	김치화	김치화	효자증가선대부호조참판김치화지려	1885		시묘(3년상)
	교래리	효열	문씨	송덕보	한량송덕보처문씨효열지려	1862	1950	자결 관 표면(海藻螺角)
	북촌리	열효	고씨	김여빈	고김여빈처고씨약기남김재명열효비	1864(미육 하사)	1933	시신 운구(남편 의주~제주)
	신촌리	열녀	국지	홍질	열녀사비국지지려	1634	1928	종신 수절
구좌읍	김녕리	효자	김칭	김칭	효자김칭지려	1487	1859	봉양(모친) 할경(割脛)
	종달리	효자	이영조	이영조	효자이영조지려	1859(완)	1909	간병(모친)작지
	월정리	열녀	한씨	김영은	열녀한씨지비	1900(완)	1999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우도면	서광리	효자	고달인	고달인	효자고달인지려	1869(완)		간병(부친) 작지

〈표 Ⅳ-5〉 서귀포시 정려비

소재지		성격	성명	관계자 (남편)	비제	정려 연도	건립 연도	내용
성산읍	수산리	효자	현윤경	현윤경	효자유향별감현윤경지려	1814	1860	간병(부친) 작지
	수산리	효열	고씨	오경인	효열고씨지려	1822	1843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수산리	충효	홍달한	홍달한	충효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홍공달한지려	1749		봉양(모친) 검변 작지 부친추복 국상(숙종)
	난산리	의사	오흥태	오흥태	의사오흥태지려	1794		의병 모집 1728년(영조 4) 이인좌 난
표선면	성읍리	효자	강운	강운	전력부위강효자정려비	1780	1971	봉양(모친)부친추복
	성읍리	효열	김씨	조명윤	증가선대부호조참판조명윤처 효부정부인김씨지정려	1891		봉양(시부)
	성읍리	열녀	송씨	강시한	숙부인여산송열녀정려비	1772	1971	종신 수절
남원읍	위미리	열부	김씨	김정옥	열부김씨지려	1782	1934	자결
	태흥2리	열부	오씨	김창언	열부군위오씨비려	1812		자결
	한남리	열녀	정씨	석곡리 보개	열녀정씨지비	미상	1834	종신 수절
중문동	중문동	효열	김씨	김창은	처사김공창은지처효열경주김씨지려	1814	1963	자결
	중문동	효열	이씨	강응록	처사강응록지처효열유인이씨지비	미상	1931	자결
	중문동	절행	양씨	임도관	처사임도관지처절행유인양씨지려	미상	1963	자결
안덕면	덕수리	효자	현재옥	현재옥	효자현재옥문	목사(완)	1922	봉양(부모)
	창천리	효열	김씨	강응주	처사강응주지처절효유인김씨지려	1781		봉양(시모) 자결
대정읍	무릉2리	효자	문달민	문달민	효자문달민지려	1854(복)	1938	간병(부친) 작지
	신평리	열녀	오씨	박성림	열녀오씨지문	1900(완)	1941	봉양(시부모) 종신 수절
	무릉2리	충효	문달복	문달복	충효문달복지려	1854(복)	1938	간병(모친) 작지 국상(철종) 능역
	상모리	의사	구제국	구제국	구제국의사비	1817	1985	의병 모집 1811년(순조 11) 홍경래 난
	하모리	의사	오좌수	오좌수	오좌수의거비		2009	일본 어부와 격투 1887년(고종 24) 이만송, 이흥복, 정종무, 김성만, 김성일
	안성리	의사	삼의사	삼의사	제주대정삼의사비		1997	봉세관, 천주교 폐해 시정 1901년(광무 5)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2. 행정구역별 소재지 분석

제주시의 50기 중 절반 이상은 애월읍과 한림읍에 소재하고 있다. 총 27기(정려각 3명 등 포함시 32명)가 두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여기에 한경면 6기까지 더하면 33기가 되는데 이는 제주도 전역의 정려비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는 제주시 북서부 지역에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월읍 금성리(6기)와 한림읍 대림리(6기), 귀덕리(5기)는 현재 제주도 전역에서 단일 마을별로는 가장 많은 정려비가 소재하고 있어 이 지역의 충효열 전통이 그 역사가 깊을 뿐 아니라, 보존 장려에도 후손 및 마을에서의 관리가 철저함을 알 수 있다. 애월읍에는 비석이 아닌 건물로써 삼정문(정려각)을 세워 3인을 정려하고 있다. 신엄리 소재의 삼정문은 효자 박계곤, 열녀 박씨(박계곤의 딸), 충비 고소락(열녀 박씨의 비) 등 3인을 추모하고 있다[46]

서귀포시 지역의 특징은 충효 및 충의비가 상당수 소재함을 알 수

46) 삼정문에는 가운데 효자 박계곤, 왼쪽에 열녀 박씨, 오른쪽에 충비 고소락의 정려 편액이 걸려 있는데, 편액의 높이가 각각 다르다. 부친인 박계곤이 가장 높게, 자식인 박씨가 한 단 아래, 고소락은 박씨보다 한 단 아래의 높이로 걸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조가 내린 다음 교서의 내용을 참작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 4월 22일(무인). "제주어사 심낙수가 별단을 올려 아뢰기를, '…박계곤에게는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이 있었고, 그의 딸은 열부였으며, 그 열부에게는 또 충비가 있었으니, 효와 열과 충이 서로 감응하여 한 집안에서 나온 것을 서로 전하여 기이한 일로 삼고 있습니다. 의당 그들을 정표해서 전하는 명성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정조가) 전교하기를, '계곤의 집안에는 또 그의 딸이 열부가 되었고 그 열부에게는 또 충성스런 여종이 있어 효와 열과 충이 한 집에 모였는데,…박계곤의 정문에는 효자, 열녀라 쓰고 한 줄을 낮추어 충비의 이름을 써넣어주도록 하라.'고 하였다(濟州御史 沈樂洙 進別單曰…繼昆有通天之孝 其女有烈婦 烈婦又有忠婢 孝烈忠之相感而萃於一室 傳以爲異事 宜有旌褒 以樹風聲 敎曰 繼昆之家 又有其女之爲烈婦 烈婦又有忠婢 孝烈忠共萃…朴繼昆之閭曰 孝子烈女 低一行 扁以忠婢之名)."

있다. 특히 충의 6기 중 의녀 2기를 제외한 나머지 4기는 모두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여기에 충효 2기까지 포함하면 충효 및 충의 총 10기 중 6기가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다. 제주시 지역의 절반도 안 되는 충효열 정려비가 소재하고 있는 서귀포시에 충효, 충의비가 오히려 제주시 지역보다 많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성산읍과 대정읍에 충효, 충의비가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충'과 '의'의 고장임을 웅변하고 있다.

1728년(영조 4) 이인좌의 난과 1811년(순조 11) 홍경래의 난 때 의병을 소집하여 육지로 진출하려다,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위에 그쳤던 오흥태(성산 난산리)와 구제국 및 양위경(대정현, 안덕면)의 사례는 제주 지역도 중앙정부의 혼란 수습에 일조를 기하려는 의지의 표출로 이해된다. 또한 근현대 시기에 오좌수(1887), 삼의사(1901)의 활약은 일본 및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대정 지역민의 의식을 드러내어 후손에 큰 교훈으로 남고 있다.

Ⅴ. 맺음말

제주도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석군이 산재하고 있다. 조선시대 목사, 판관, 현령(현감), 군수 등 목민관 비석(군) 뿐만 아니라 정려비(충·효·열비) 등이 상당수 남아있어 제주도는 '금석문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성격과 내용을 보여주는 옛 비석은 그 자체가 지역사와 시대상,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이다. 하지만 제주의 옛 비석, 즉 정려비나 목민관비 등에 대해 이제까지 제대로 된 조사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려비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충효열의 사례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조사연구가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다.

본고는 조선시대 제주의 정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려비의 전수조사와 제주 정려의 문화와 충효열의 사례가 일차적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 제주에 내린 정려비는 총 71

기(77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50기(52명), 서귀포시 21기(27명)가 소재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북서부 지역인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지역 소재 충효열비가 총 33기(34명)이어서 제주 전역의 충효열 정려비 중 절반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충효열 전통이 역사가 깊을 뿐 아니라, 보존 장려에도 그 관리가 철저함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지역은 충효 및 충의비가 다수 소재하며, 특히 성산읍과 대정읍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이 '충'과 '의'의 고장임을 웅변해준다.

내용별로는 효자 21기(21명), 효열 20기(20명), 열녀 20기(18명), 충효 4기(6명), 충의 6기(12명)로 구분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29기(37명), 여자 42기(40명)이다. 효자 정려비는 대부분 부모를 정성스레 봉양 또는 간병하여 정려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작지(斫指), 할경(割脛) 등 자기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소생 및 연명시키는 경우이다. 그 외에 추복, 시묘 3년상 등이 뒤를 잇는다. 효열 정려비는 대부분 봉양(시부모) 또는 간병(남편)을 지극 정성으로 하여 정려되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종신 수절하며 시부모나 남편을 봉양하고 간병하는 경우이다. 열녀 정려비는 대부분 남편이 죽은 후 자결하거나 종신 수절하는 경우이다. 충효 정려비는 효자이면서 나라(임금)에 충성을 다해 '충효'의 정려를 받은 경우이다. 대부분 국상 때 3년복 시행, 직접 상경하여 능역 참가 등으로 받았다. 충의 정려비는 '의사'와 '의녀'로 구분되는데, 일본 어부의 약탈에 저항, 프랑스 외세 침략에 저항, 빈민구휼, 유배인 보호 등의 이유로 수여한 경우였다.

향후 정려비(충·효·열비) 뿐 아니라 목민관 비석(군) 및 유배인 유허비와 기타 조선시대 각종 기념비에 마애명까지 포함하여 집대성한 '제주의 금석문' 자료집 간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비석은 1차 사료라는 중요성에 세월이 흐를수록 훼손, 마모의 우려가 큰 역사자료이다. 따라서 보존, 관리의 합리적 대책 마련과 더불어 조선시대 고비 전반에 대한 기록화 및 디지털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일비일첩(一碑一帖)의 탁본과 사진 영상 제작, 관련 자료 DB화 등이

바로 그 작업일 것이다. 이리하면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인문자원 한 분야가 새로이 마련되는 셈이다. 여기에 사료 보전의 의미까지 더해져 후대에 지속적인 전승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화 작업 등이 뒤따르면 제주의 역사문화가 보다 풍부해지는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1. 사료

『남명소승』(임제). 『남사록』(김상헌). 『남환박물』(이형상).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풍토록』(김정). 『조선왕조실록』. 『증보탐라지』(담수계). 『탐라지』(이원진).

『탐라지초본』(이원조). 『효열록』(김영락).

2. 단행본

김찬흡 외, 2002, 『역주 탐라지』(이원진), 푸른역사.

김찬흡, 2002, 『제주사인명대사전』, 제주문화원.

김희동, 1992, 『남사록』, 영가문화사.

북제주군, 2001, 『북제주군 비석총람』, 제주도 북제주군.

서귀포문화원, 2009, 『우리 고장의 비석들』(1,2).

신호열·임형택, 1997, 『역주 백호전집』(상·하), 창작과비평사.

제주교육박물관, 2001, 『탐라의 효자 열녀전』.

_____, 2007, 『탐라지초본(상,하)』(이원조).

_____, 2011, 『(역해)향토문화교육자료집』(효열록).

제주도, 1982,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탐라문헌집』.

제주도·제주동양문화연구소, 1999, 『제주도마애명』, 경신인쇄사.

제주문화원, 2005, 『역주 증보탐라지』(담수계).

_____, 2007, 『역주 제주고기문집』.

제주시, 2002, 『제주시 비석일람』.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제주시의 옛터』.

한라산연구소, 2014, 『한라산의 마애명』.

현행복, 2004, 『방선문』, 도서출판 각.

_____, 2006, 『취병담』, 도서출판 각.

홍기표, 2008·2009, 『남사록 역주』(상·하), 제주문화원.

홍순만, 2013, 『제주의 비』, 제주문화.

3. 논문

강만생, 1986,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3).

송기호, 2011, 「수령과 선정비」, 『대한토목학회지』(59권 5호), 대한토목학회.

임용한, 2007, 「조선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 『한국사학보』(26).

장거수, 2000, 「정려비에 나타난 제주인의 효행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전영준, 2008, 「문화사교육 콘텐츠구성을 위한 금석문자료의 활용」, 『첨단문화기술 연구』(4호).

조동원, 2006, 「금석문의 역사와 자료적 가치」, 『대동문화연구』(55).

조동일, 1998, 「동아시아 금석문의 문화사적 의의」, 『관악어문연구』(23).

홍기표, 2015, 「조선시대 제주 목민관 비석(군)의 현황과 분석」, 『제주도연구』(45).

홍대한, 2010, 「조선시대 철비의 조영 연구」, 『한국기록학연구』(24).

홍순만, 1978·1979, 「비(연재 총 38회)」, 『제주신문』.

_____, 1991, 「제주목사에 관한 서설」, 『제주도사연구』(창간호).

4. 홈페이지

고영철, 고영철의 역사교실(http://www.jejuhistory.c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222.grandculture.net/).

Abstract

A Study of Filial Piety and Chastity Steles(旌閭碑) of Jeju Island in Joseon Dynasty

Hong, Ki-Pyo

Jeju Island has a variety of steles of Joseon Dynasty. That is why it is evaluated as a 'repository of monumental inscription' where has governor steles, memorial stones, and monuments(for loyalism, filial piety and chastity) etc. Steles in Jeju Island, especially, are invaluable resources representing rich historical culture of Jeju Island.

It is considered that 71 filial piety and chastity steles were bestowed on 77 persons in Joseon Dynasty. By regional groups, 50 steles(of 52 people) are in Jeju-si and 21 steles(of 27 people) are in Seogwipo-si. Especially, It is situated at Aewol-eup, Hallim-eup and Hangyeong-myeon, the northwest of Jeju-si that 33 steles(of 34 people) which occupy half of the total steles in Jeju.

Categorized by contents, they are divided into devoted son; 21 steles(of 21 people), filial piety and chastity; 20 steles(of 20 people), a woman of chaste reputation; 20 steles(of 18 people), allegiance and filial piety; four steles(of six people) and loyalism; six steles(of 12 people). By gender, male; 29 steles(of 37 people), female; 42 steles(of 40 people).

Key Words: filial piety and chastity steles(旌閭碑), Jeju, Joseon, devoted son(孝子), a woman of chaste reputation(烈女).

교신 : 홍기표 10908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한빛마을 5단지
522동 1904호 (E-Mail: hkp6236@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01. 20.
심사완료일: 2017. 02. 10.
게재확정일: 2017. 02. 16.